

《驛三洞 유형의 시공간적 위치 및 문화적 의의》에 대한 토론문

송만영 (숭실대학교 사학과)

이번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로 보건대, 공렬토기의 출현과 더불어 역삼동유형의 시공간적인 전개 과정에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송국리유형의 발생설과 관련하여 역삼동유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에도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토론문은 4편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문으로 질의 내용이 다른 지정 토론자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토론자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토론자가 판단하기에 중복된 질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관점에서 중복 질의하였다.

1. 공렬토기의 기원과 남한 지역 출현 시점

공렬토기의 기원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발표자들이 잘 정리했듯이 자생설과 외래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자생설은 신석기시대 말기의 줄문공렬토기에 주목하여, 공렬이라는 문양 요소가 청동기시대 공렬토기와 계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생설에서는 공렬토기의 출현 시점이 무문토기 가운데 가장 이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출토 상황을 보여주는 유적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하남 미사리와 춘천 중도유적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의 공반이 인정되고 그래서 가장 이른 무문토기는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로 알려져 있다.

(1) 중서부지역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무문토기가 공반된 주거지 사례를 통해 공렬토기의 청동기시대 太古性을 주장한 연구 사례(김장석 2008)의 연속선 상에서 황재훈선생님은 공렬토기의 기원은 경기 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말기의 줄문공렬토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표 1)에서 근거로 제시한 유적, 유구들이 모두 과도기 단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동시 폐기성을 넘어 빗살무늬토기와 공렬토기의 시간적 중복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시한 발굴 자료로 보건대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공반된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파편으로 후퇴적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빗살무늬토기가 공렬토기와 더불어 동시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빗살무늬토기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게 출토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논증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유적, 유구들 가운데 신석기시대 말기의 빗살무늬토기가 포함되는지, 또는 가장 이른 청동기시대 탄소연대측정치가 확인되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나건주선생님의 발표문에서도 공렬문과 같은 재지의 신석기문화 요소가 역삼동·혼암리유형의 형성 과정



에 관여되어 있다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차령 이북의 호서 지역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연대가 기원전 3,500~2,900에 집중되어 청동기시대 유적과 시간 차이가 크며, 빗살무늬토기의 공렬문도 소성 이후에 천공된 점(수리공?)에서 청동기시대 공렬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다.

(2) 토론자는 남한 지역에서 가장 이른 공렬토기 출토 주거지 사례로 이중구연토기와 공렬토기와 더불어 서북 기원의 채색토기가 공반된 연천 삼거리 9호, 하남 미사리 A8호(송실대 조사), 철원 와수리 4호, 진주 평거동 5호 주거지로 파악한다(송만영 2013: 30-32쪽). 또한 이 주거지들의 탄소연대측정치를 참고하여 2940±14C BP 무렵에 공렬토기가 남한 지역에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창희선생님의 연대(2950±14C BP)에 가까우며, 이형원선생님의 토론문과 같이 상한은 기원전 13~12세기에 해당되어 공렬토기의 출현 시점은 탄소연대 측정치에서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출현 시점보다 늦은 것으로 파악된다. 토론자는 공렬토기의 출현을 전기의 시작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남강 유역의 경우 고민정선생님의 편년안에서 공렬토기는 초기 후반에, 혼암리 식토기는 전기 전반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기준만 다를 뿐이지 공렬토기의 출현 시점은 확실히 다소 늦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공렬토기 출현 시점의 절대연대에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데, 발표문에서 공렬토기의 출현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나건주, 고민정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역삼동유형의 발생 과정

(1) 역삼동유형의 발생과 관련하여 황재훈선생님은 신석기시대 말기 경기 서부 지역의 공렬토기가 각형토기유형의 물질문화가 복합되면서 점차 역삼동유형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북서부 지역(인천-김포, 파주-연천)의 이중구연(단사선)토기를 각형토기로 이해하고 전기 전반에 경기 북서부 지역의 각형토기유형과 경기 중부, 남부 지역의 공렬토기 출토 주거지가 병존하다가 전기 중반에 역삼동유형이 정립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사례로 든 시흥 목감동, 능곡동, 수원 울전동, 이목동, 화성 천천리, 울암리, 평택 현화리 등과 같은 전기 전반의 유적, 유구들을 역삼동유형이라 하지 않고 경기 중부, 남부 지역의 공렬토기 출토 주거지라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역삼동·혼암리유형(토론자의 백석동유형)의 공간적 범위(송만영 2013: 28쪽의 그림 3)는 안성천유역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한강, 남으로는 차령산맥에서 경계를 보인다. 더욱이 집중 분포되는 양상으로 보면, 시흥, 군포 지역이 오히려 북한계에 가깝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삼동유형의 발생 과정에 각형토기유형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2) 호서지역 역삼동·혼암리유형 발생과 관련하여 나건주선생님은 영동지역의 복합된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이 호서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두 개의 유형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강릉 교동유적의 비정상적으로 이른 탄소연대측정치인데(3390±60±14C BP, 3100±50±14C BP, 3230±50±14C BP)인데, 최근 1호 주거지 출토 탄화미를 이용하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3040±60±14C BP, 2860±20±14C BP 등의 측정치가 나와 목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대치에 고목효과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민구·박정재 2011: 71-72). 따라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제외한다면, 호서지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이 강원 영동지역에서 확산되었

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3. 역삼동유형의 성격과 시공간적 범위

(1) 청동기시대 중기의 송국리유형과 대응되는 문화유형으로 역삼동유형, 천전리유형, 검단리유형 등이 거론된다. 이 문화유형들은 큰 틀에서 공렬토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전개 과정에 다소 차이가 있고 주거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화유형으로 이해한다. 혼암리식토기가 남한 여러 지역에서 국지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관점(김장석 2001)에서 볼 때, 남한 전역 단위의 혼암리유형이 인정되지 않듯이 역삼동유형 또한 그 시공간적인 범위가 과거 연구(이청규 1988)와는 달리 매우 좁아졌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남강 유역의 역삼동·혼암리유형도 다르게 명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대한 고민정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한편 반대로 지역에 따른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송국리유형 분포권의 외곽 지역은 큰 흐름에서 유물·유구복합체의 변화 과정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학계가 세부적인 지역 차이를 기준으로 문화유형을 너무 세분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 즉 송국리유형 핵심 분포권과 주변 지역에 차이가 있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송국리유형으로 명칭하듯이 역삼동, 천전리, 검단리유형도 결국 동일 문화유형의 지역적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이청규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4. 송국리유형과 역삼동유형

송국리유형 발생설과 관련하여 우정연선생님은 최근 절충설의 입장에 있다(우정연 2010). 그 골자는 ① 외래 기원의 유구경식 비파형동검이 기원전 10세기 무렵에 동시다발적으로 금강 이남 지역에 등장하고 곧 이어 역삼동유형과 가락동유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송국리유형의 여러 요소들이 비파형동검의 관계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원전 10~9세기에 송국리유형 핵심권을 형성하였다는 점, ② 따라서 송국리유형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이 핵심권 밖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핵심권으로 전파되어 양식적인 통일을 이루었다기 보다는 핵심권의 송국리유형이 주변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1) 토론자는 금강 유역에서 이르게 편년되는 무덤 출토 비파형동검과 더불어 부여 송국리 52지구 1호 석관묘 출토 비파형동검도 그 계보를 추적하면 가락동유형과 관련된다고 하였다(송만영 2015). 게다가 금강 상류 미호천유역에 위치한 청주 학평리 219-5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발굴)에서도 둔산식 주거지에 비파형동검과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공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금강 유역에 처음 출현하는 비파형동검은 대부분 가락동유형과 관련됨을 알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락동유형 집단의 관계망 안에서 송국리유형이 출현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부탁한다.

(2) 송국리 52지구 무덤군의 상대편년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무덤이 조영되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1호 석관묘가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된 5호 석관묘보다 이르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라 보고 나아가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비래동 지석묘와 함께 동 시기인 기원전 11~10세기로 편년하였다(우정연



2010). 토론자는 송국리 52지구 1호 석관묘와 비래동 지석묘 출토 석축을 비교하여 비래동 지석묘 출토 비파형동검이 이르고, 따라서 가락동유형 III기에 금강의 특정 지점이 아닌 전체에 비파형동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의 여러 석축 편년 연구자에 따르면, 비래동 출토 석축은 전기 후엽, 송국리 1호 석관묘 출토 석축은 중기로 편년되는데, 공반된 석축의 편년보다 검증되지 않은 전제에 기반하여 편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역삼동 재지기원설, 특히 반송리식 주거지가 역삼동식 주거지와 휴암리식, 송국리식 주거지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이형원 2007; 나건주 2009)에 대하여 토론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바 있다(송만영 2010). 비판의 요지는 역삼동식-반송리식-휴암리식-송국리식 주거지의 변화 과정이 노지의 소멸 또는 타원형 수혈의 형성(반송리식 주거)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반송리식 주거의 형성 과정이 출토 유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

| 참고문헌 |

- 김민구·박정재, 2011, 「강릉 영동지역 청동기시대 벼농사와 농경집약화」, 『한국고고학보』 79, 한국고고학회.
- 김장석, 2001, 「혼암리 유형 재고: 기원과 연대」, 『영남고고학보』 28, 영남고고학회.
- 김장석, 2008, 「무문토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 69, 한국고고학회.
- 나건주, 2009, 「송국리유형 형성과정에 대한 검토」, 『고고학』 8-1, 서울경기고고학회.
- 송만영, 2010,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중기 편년의 재검토」, 『중앙고고연구』 7, 중앙문화재연구원.
- 송만영, 2013, 「혼암리식 토기 발생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79, 한국상고사학회.
- 송만영, 2015, 「송국리유형 발생설의 학사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95, 한국고고학회.
- 우정연, 2010, 「금강중류 남부 송국리유형 상한 재고」, 『호서고고학』 23, 호서고고학회.
- 이창희, 2013, 「청동기시대 초기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 이창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 창간호, 한국상고사학회.
- 이형원, 2007, 「반송리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와 성격」, 『화성 반송리 청동기시대 취락』, 한신대학교박물관.

